

북한개발소식

2022 APR

04

통권 198호

이달의 주제

한반도 주변국 정세와 북한 선교

탈북민 수기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3)

서평

내이름은 김다혜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한반도 주변국 정세와 북한 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2 APR

이달의 주제 :

한반도 주변국 정세와 북한 선교

- 권두칼럼 **01** 한반도 주변국 정세와 북한 선교
- 칼럼_1 **09** 오픈도어 현장사역자_ 동북아 혼란기 북한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 칼럼_2 **14** 김아모스_ 중국정부의 종교정책과 중국 가정교회
- 칼럼_3 **19** 박형서_ 러시아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한국 교회
- 탈북민 수기 **27**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3) -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 북한 뉴스 **33** 북, 4년 4개월만에 ICBM 동해상으로 발사...모라토리엄 선언 파기 외
- 서평 **37** 내이름은 김다혜
- 북한 기도 제목 **38**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북한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지리적으로는 직접 땅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세계 최악의 박해가 자행되는 북한이기에 북한 선교는 불가피하게 북한의 주변국을 거점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주요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두 국가는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이며 선교사들이 장기 체류해야 할 거점인 만큼 각국의 대내외적 안정이 선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래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의 중심에 바로 이 두 국가가 자리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선교 현장의 안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북한 선교에 미칠 영향 및 전망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중국의 선교환경에 대한 우려와 기대

중국은 북한의 북쪽 국경 대부분을 마주하는 만큼 오랜 기간 북한 선교의 주요 거점이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어진 선교사들의 대량 추방과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 강화 등으로 인해 선교 환경은 계속 악화되어왔다. 특별히 근 몇 년 사이 시진핑 정권의 종교 전반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졌다.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주관 2월 월례 발표회에서 한동대 마민호 교수는 중국의 종교정책 변화에 대해 그동안 중국은 경제 문제를 주요 모순으로 보고 종교를 포함한 그 외 사항들은 부차적 문제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종교를 주요 모순의 반열에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정권은 종교 중국화(宗教 中國化)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과 일치해야 하고, 공산당의 지도력에 따라

야 한다는 '종교의 사회주의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기독교는 △중국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해외 세력과 결탁하지 말 것 △중국 사회체제에 적극 적응할 것 △신념을 중국 문화 아래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은 선교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은 그간 코로나 발생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봉쇄를 불사하면서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비자 발급 등의 행정활동이 자연스럽게 제한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모든 개인의 동선이 추적, 관리되었다.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중국 체류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체류를 하더라도 사역을 위한 이동 및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세계 각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도 중국은 여전히 봉쇄에 가까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북한 선교에 참여할 여러 선교사나 사역자들의 거주 및 활동은 계속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미중갈등의 악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도 선교현장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견제가 주를 이루었지만, 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변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 역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듯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도 중국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와는 다르게 러시아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원유 거래 시 지불 수단으로 미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 거래를 추진하는 등 현재의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국에게 상당한 외교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에 불어 닥친 한한령의 여파가 아직도 다 가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 당시 한인 선교사를 비롯하여 한인 교회 사역자 등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량 추방의 피해를 입었고, 선교현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한인 선교사에 대한 추방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의 불뚱이 한국으로 튈다면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의 체류와 활동에 다시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선교에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올해 초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1-2월 북중 무역 교역액이 작년에 비해 4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물열차 운행 재개 효과로 보인다.

1 “中, 통제와 박해에도... 최대 기독교 국가로 성장 - 한복합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과 중국교회’ 2월 월례 발표회”, 기독교일보, 22.02.1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5601>>

다.²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종이 창궐하고 있고, 중국 역시 시간차를 두고 그 여파를 맞고 있기에 당분간 북중 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북중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 확실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의 증가를 수반할

것이다. 선교 현장의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관심이 중국의 코로나 종식 상황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아직 중국의 코로나 종식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 정책은 기존의 제로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조정되거나 더 나아가 상당한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가을 열릴 제20차 당 대회는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에 맞춰 중국 당국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며 대내외적으로 모종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월 초에 열린 양회에서 중국은 예상보다 높은 5.5%의 경제성장을 공헌하였다. 또한 지



〈3월 16일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난해부터 저출산 대책과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사교육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봉쇄 중심의 코로나 방역이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에 효과적이지 못한 방역 방식이며 민생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중국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의 중국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도 인구 10만명당 4.37개로 미국(35개)이나 독일(29개)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³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두고 변수를 최소화하고 방역 성과를 선전해야 하는

2 “북중 화물열차 재개로 올해 1~2월 교역액 작년 동기대비 40배↑”, 연합뉴스, 22.03.18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8156400097>>

3 “오미크론에 ‘초강력 봉쇄’...중국은 ‘제로 코로나’ 왜 포기 못하냐”, 한겨레, 22.03.1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4922.html>

입장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도 경험했던 바와 같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엄청나 이전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만약 기존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력한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고 이는 중국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인지 최근 중국의 방역 정책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했던 선전시나 상하이 등 주요 산업도시들의 경우 코로나 환자 증폭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거의 전면 봉쇄 대신 기업과 산업 활동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방역을 진행하고, 그 기간도 비교적 짧게 잡는 모습이다. 중국의 이번 코로나 확산의 경우 급속하게 여러 도시로 퍼지는 중인만큼 중국의 방역 정책의 경로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에서도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가 그간 선교 활동을 제한하는 환경적 제약의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러시아를 통한 북한선교와 북러 관계의 강화

중국의 선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그 대안으

로 주목받게 된 곳이 바로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또한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러시아에 상당한 규모로 노동자를 파견하기도 하는 등 인적 교류도 상당히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의 기회도 비교적 있는 지역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형국이다. 경제 제재를 비롯하여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과 북한이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다. 중국은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군사적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며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의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다. 러시아 관영 언론사 스푸트니크 일본지사는 3월 16일 양국이 단일 통화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좀 더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사태가 나토(NATO)의 확대를 추진했던 미국과 서방 세계의 패권주의 탓이며 러시아 탓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단 5개 국가 뿐이다. 3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사진)는 유엔 긴급특별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정책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월 3일에는 북한의 김정규 유럽1국 국장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국제 정세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협력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기대되는 외교적, 경제적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또 자극하는 외교적 효과와 함께 식량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

(Ruediger Frank) 교수는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서방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도 잃을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현재 안보리 제재에 따른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는 50만 배럴인데 러시아가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4 손효종, “우크라이나 상황의 대북 시사점과 한국의 고려사항”,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책분석 (2022.03.03.). p 3.

5 Ruediger Frank, “North Korea as a Beneficiary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38 North, 2022.03.16. <<https://www.38north.org/2022/03/north-korea-as-a-beneficiary-of-the-russian-invasion-of-ukraine/>>

러우 전쟁과 이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러시아에 체류하는 한인 선교사님들의 체류와 활동에 어려움이 주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 적용되고 있는 스위프트(SWIFT) 제재⁶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선교비 송금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지 경제 사정의 악화와 내부 단속 강화에 따른 사회 불안도 선교사역에는 상당한 장애 요소로 인식된다. 이 외에도 현재 러시아 제재에 한국도 동참하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 선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북러 밀착관계는 자연스럽게 북러간의 교역 증가 및 인적·물적 교류 확대,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견 노동자 수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는 늘어나고 북한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현지인들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촉점의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비록 러시아도 선교 활동이 제한받는 지역이고 많은 제약이 있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운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장기 체류 시 영주권 취득 등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런 맥락

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선교의 교두보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 우려와 우리의 기도

앞선 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최근의 정세와 선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사실 현 정세 이면에는 선교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보여진 독재적 체제를 가진 국가의 극단적인 의사결정과 사회 통제, 그리고 미국 및 서구와의 대립 과정에서 민족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의 강조 및 이로 인한 기독교(특히 개신교)에 대한 비토의 가능성 등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앞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선교현장의 여러 난관과 변수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제로코로나 정책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하여 십억이 넘는 대규모의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제, 추적,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특별한 개기나 사건이 없었을 뿐이지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사회 전반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가 만약 평시에도 작동한다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체류나 사역은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현장의 사역자들과나 탈북자들의 안위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장 국가의 정책 변화 흐름을 잘 추적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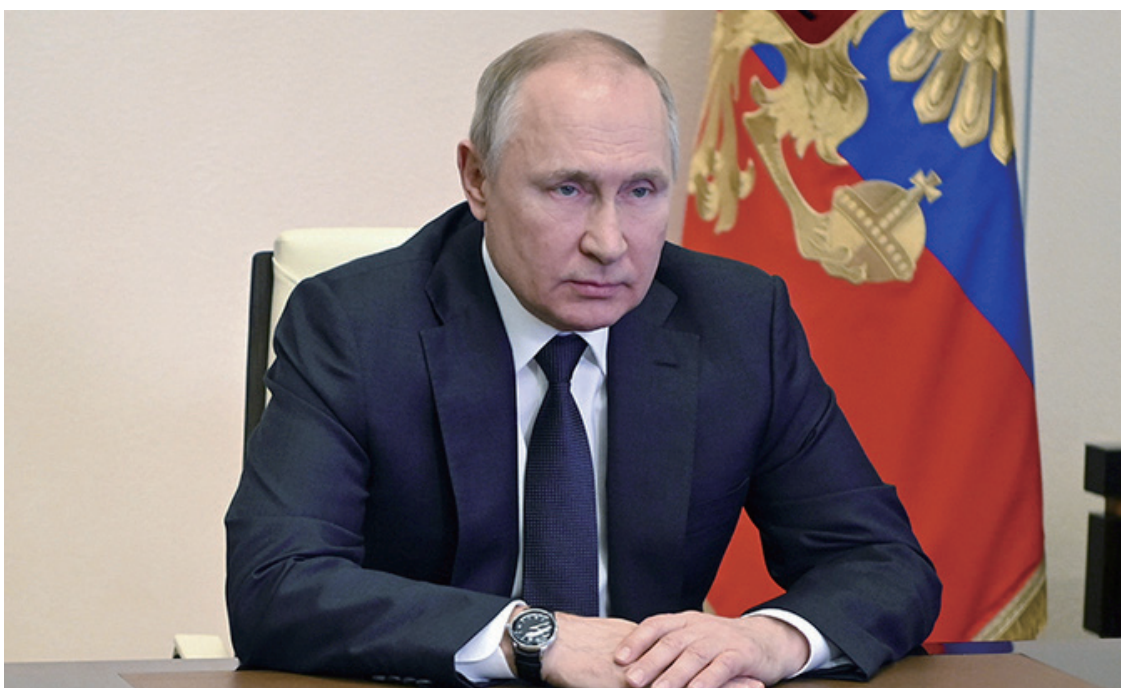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독재적 체제가 가지는 위험성도 우려스럽다. 위 국가들은 과거 공산권으로서의(역사적)배경으로 공유하고 있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당이나 개인의 독재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 속에 공산주의적인 또는 민족주의적인 정치 논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간 여러 박해국가의 사례에서 확인해온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외부의 종교, 특히 서구의 종교로 인식되는 기독교(러시아의 경우 정교회 아닌 개신교 등)에 대한 국가적 태도를 배척과 핍박으로 이끌고, 이미 심각한 핍박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독재적 체제 하에서는 권력자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견제하거나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 이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이성적으로는 상당히 무리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나 비판 없이 관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재적 체제의 특징이 기독교 박해에 적용될 때의 폐해를 우리는 이미 북한의 사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기독교 박해와 종교 사회주의화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국제적 대립이 과거 냉전과 같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와는 달리

전 세계가 경제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서로 깊이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이번 러우 전쟁의 여파가 크긴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게 된다면 대러제재 완화 및 상황의 연착륙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쟁이 그간 이슈가 되어왔던 양안갈등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해석도 있다. 세계 제 2위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지형적으로도 불리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바다를 끼고 있고 미군의 지원을 받는 대만에 대한 침공을 재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하튼 최근의 국제정세의 혼란은 우리에게 평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또 선교현장의 안정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현 상황은 혼란스럽고 앞서 언급한 여러 잠재적 우려사항들이 있지만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로나 종식 이후 북한 선교의 새로운 전기가 도래하리라 조심스럽게 기대 섞인 예측을 제안해본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 종식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국가적인 경제 발전 목표달성과 시진핑 3연임을 위한 민심 안정 및 업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적당한 선에서 방역을 완화하고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재는 혼란과 고립을 피할 수 없겠지만, 전쟁이 평

6 스위프트(SWIFT)는 1973년 벨기에에 설립된 달러화로 국제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이다. 개인이 은행으로 달러 송금을 할 때도 스위프트 코드가 적용돼 접근이 차단되면 해외로 송금할 수 없게 된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국가는 외국과의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거의 모든 국제 금융 거래가 봉쇄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스위프트 제재를 받는 국가는 러시아, 이란, 북한 3개국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러시아에도 피해가 커지면서 외신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왜곡된 정보를 전달받아 오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70세인 푸틴 대통령이 건강 이상에 따른 인지능력 감소와 판단력 저하 등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도 있다.〉

화적으로 종식이 된다면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은 점차 잠잠해지고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국 모두 북한과의 관계 강화와 교류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코로나 종식 이후 해당 국가를 통한 북한과의 접촉점은 다양하게 확대될 것이다. 이 때를 선교의 때, 복음의 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된 일꾼들이 선교 현장에 나아가야 한다.

세상 권세는 선교를 막고 방해하기 위해 애쓰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그 어두움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신다. 우리는 쉽게 과거의 경험이나 관습, 고정관념에 머무른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뉴스들을 듣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

게 담대함을 잃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급변하는 정세와 선교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능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본 선교회의 이름과 같이 주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비록 누구도 앞날을 확신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길 바라며 기도한다. ☺

칼럼 1

동북아 혼란기 북한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교사란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선교지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삶은 때로는 장점도 있으나 많은 경우 삶의 불안정과 위험을 내포한다. 해외거주자치고 사연 없는 이가 드물지만 그중에서도 선교사는 현지에 장기간 거주하며 현지에 깊은 영향을 끼치려는 특수한 집단이다. 선교사는 외국인으로서 선교지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여러 변수를 극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대상국가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세계화 의식을 함양하게 되고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키게 된다. 특히 북한 선교사가 그렇다.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삼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파송국-대상국; 파송국-체류국; 대상국-체류국의 복잡한 관계의 변화가 선교사역의 변수로 작용한다. 선교사는 남-북-중 혹은 남-북-러의 관계를 넘어 동북아시아 관계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통찰을 얻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필자와 동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들 간의 이슈가 북한선교 현장

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성도들에게 기도제목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관계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사건들

북한선교현장에서 있었던 국가 간 갈등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2016년 사드(Thaad)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 간의 갈등이다. 그 이전까지 한중관계는 최고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한국영화와 드라마가 전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도시의 어디를 가건 광고판에서 한국 연예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친한(親韓) 열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참석으로 정점을 찍는다. 전승절 이후 한동안 중국에서는 박근혜, 푸틴, 시진핑이 천안문 망루 함께 찍은 사진이 모든 언론을 통해 반복 보도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부각되었고 기차역의 서점마다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오바마, 스티븐 잡스 자서전과 함께 박근혜

전기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2016년 여름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발표가 있은 후 순순간에 반한감정으로 변하였다. 공교롭게도 2016년 12월부터 중국동북지역 선교사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추방이 시작되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연변에서 활동하던 32명의 선교사가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하였고, 그 이외에도 당시 몇 개월간 동북지방에서 비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 선교사들이 100여명을 상회한다. 국내의 대다수 교계언론들도 당시 중국의 선교사 추방 문제를 사드문제와 연관하여 다루었다. 실제로 연변에서 추방당한 모 선교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선교사 추방이 중앙기관으로부터 하달된 지시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선교사는 고위당국자인 지인을 통해 경색된 한중관계가 추방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을 국내 언론에 전했다. 사드사태가 선교사의 추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말이다. 미사일 기지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삼성, 현대를 비롯한 사드와 관련 없는 기업의 현지 법인들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제재를 당하여 어려



〈17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인들이 롯데마트 점포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 신분이 불명확한 선교사 사회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미-중 갈등과 관련한 피해자로 알려진 북한선교계의 인물로 캐나다인 줄리아 & 케빈 가렛(Julia & Kevin Garratt) 부부가 있다. 2007년 줄리아, 케빈 부부가 단둥에서 시작한 피터스 커피숍(Peter's Coffee House)은 선교사들과 외국인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북한선교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부부는 커피숍을 통하여 문화사역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국영기관과 함께 고아원의 겨울나기 프로젝트, 학생들 학용품 보내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하여 약품, 비타민, 두유 지원프로젝트부터 김치보내기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였다. 30년차 베테랑선교사로서 단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지역에서의 문화사역과 북한을 위한 지원사역을 통해 부부는 많은 열매를 맺었고 지역의 중국인들과 선교사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간첩죄로 체포되는데 그들이 간첩 누명을 쓴 이유는 캐나다 정부와 정보기관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소속인물, 미국의 정보기관 소속 인물, 언론인들과 교류한 것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찍은 국경의 사진 중 일부가 민감시설에 대한 촬영으로 구분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간첩 누명 씌우기 스캔들은 미국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주로 미국의 우방국 국민들에게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캐나다인에게 많이 일어난다. 2018년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캐나다인 사

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전직 외교관출신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이 간첩죄로 중국에서 체포되었다. 이들 중 마이클 스페이버는 지난해 간첩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중국내 캐나다 선교사들은 '이번에도 선교사들에게 불뚝이 튀지 않을까?'하는 긴장상태에서 상황을 주시하였다. 제3국의 북한선교현장은 민감한 지역으로 그곳에서 활동하는 여러 종류의 인물이 있고 그들 중 대다수가 개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활동한다. 현장에서 교류하는 온갖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과 연결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는 현지 당국의 행태가 문제이지만, 선교사도 현장에서의 만남과 관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02년 2월 14일 탈북자들의 주중 스페인 대사관 난입 사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 북한선교사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섯 가족과 개인 3명(성인 14명, 10대 11명)으로 구성된 탈북자 25명은 2월 14일 오전 10시 관광객 차림으로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해 난민지위 인정과 한국행을 요구했다. 거사 감행 전 이를 사전에 통보받았던 외신 기자들은 이들의 대사관 진입장면과 함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자결하기 위해 독극물까지 품고 있다는 이들의 절박한 사연을 전 세계에 타전함으로써 이들 탈북자들의 운명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북한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이들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고 전 세계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大) 9기 5차회 기간이었던



〈단둥에서 사역했던 케빈 가렛 선교사와 피터스 커피하우스. 케빈 가렛 선교사는 중국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어 2여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데, 주룽지(朱鎔基) 중국 국무원 총리는 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25명의 신병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했고, 신병처리 협상조건이 차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총리의 입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표는 25명 탈북자들에 대한 협조-신분보장으로 해석되었다. 실제로 주룽지 총리의 발표 직후 탈북자들은 추방의 형식으로 필리핀으로 출국을 허락받아 두시간만에 필리핀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 세계교회와 국제사회는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중국내 북한선교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탈북자를 찾아보기가 훨씬 어려워 것이다. 중국 동북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던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건은 갈 곳 없는 탈북자 25명의 생명을 구원하고 탈북자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 일과 연관된 이들 중에는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귀한 일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동참한 이 선교사들의 선한 동기와 순수한 열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건은 중국당국이 탈북자 검거작전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되는 방아쇠가 되었고 이를 통해 수만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복송되었다. 탈북자가 줄어든 중국에서 북한선교 역시 극도로 위축되게 된다. 이 사건은 중국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서 덮어두고 싶은 ‘탈북자’라는 이슈가 ‘대사관’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상징성과 만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타전됨을 통하여 중국내 탈북자문제가 정치문제-국제문제로 변하게 된 사건이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25명의 탈북자의 삶만이 아닌 중국 곳곳에 숨어있던 수십만의 탈북자들의 삶 그중에서도 당시 복송된 수만명의 탈북자들의 삶이 걸린 모험이었다. 또한 탈북자문제와 북한선교사역의 방향을 전환시킬 모험이었던 것이다.

안병렬 교수는 한문학자로 한국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연변에 거주하며 우리말 교육에 헌신한 인물로 한국의 학계뿐 아니라 연변의 지식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2002년 연변에서 갑자기 사라진 탈북자들의 빈자리를 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눈물만 흘립니다

새까만 손 내밀며 돈 한 푼 달라기에
불쌍하였습니다.
주머니 털어 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사
불쌍히 여김도



〈2002년 2월 14일, 탈북자 25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주재 스페인 대사관 정문을 통해 일제히 구내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중국인 경찰이 이들을 저지하려 했으나 전원 안전하게 대사관으로 진입했다. (AP연합)〉

귀여워함도

사랑함도

다 죄가 뭍을 알았습니다.

구걸도 못하는 서글픈 백성

겨울은 오는데

매서운 북풍, 추워서 어찌나요?

동짓달 긴긴 밤, 배고파서 어찌나요?

영기가 없어 죄도 짓지 못하고

마음이 독하지 못하여 잊지도 못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발을 동동, 눈물만 흘립니다.

보다 안정적인 선교를 위하여

위에서 우리는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하여 선교사역에 영향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선교사들은 국제관계 문제로 인해 선교지 당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희생양’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를 놓치지 않고 북한선교를 위한 역량으로

축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울 것으로는 첫째, 창의적 선교지역에서 국제관계 등의 어려움을 만날 때 확실한 신분의 중요성이다. 창의적 선교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눈앞의 열매와 사역을 위한 도구의 준비에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신분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된다. 현장에서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고, 이들 중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과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을 지혜롭게 구분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들이 있다. 말 그대로 창의적인 방법의 선교이므로 이들의 사역은 전통적 북한선교와 차별성을 띤다. 기존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큰 부흥이나 엄청난 열매를 맺지는 못할 수 있으나 분명히 의미 있는 사역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둘째는 현지인 사역자의 중요성이다. 한국교회의 해외선교가 2세대를 넘어가는 지금 한국선교사들이 자리 잡은 선교현장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현지인으로서의 리더십 이양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선교현장에서 현지인으로서의 리더십 이양에 대한 이슈가 잠잠한 이유는 북한선교현장 자체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선교현장은 다른 선교현장과 달리 선교지의 재산문제 혹은 교회 공동체 주도권문제 등의 실질적 문제들이 얹혀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북한선교현장만큼 현지인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한 곳도 없다. 제3국에서 선교활동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보안과 선교사의 신분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선교사는 위에서 말한 국제관계로부터 받는 영향을 비롯한 작은 문제로부터도 심

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선교현장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선교사의 신분과 한계로 인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사역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것과 선교사역을 ‘안정적으로’ 활발하게 이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안정적 사역을 위해 안정적 신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는 일맥상통 하는 면이 있다.

셋째는 정치문제로 해석되거나 국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에 타협할 수 없다. 그러나 선과 악의 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국제관계와 사상, 이념에 갇힐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의 거룩한 가치와 사역이 정치문제에 있어 하나의 이슈로 소모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선교 사역자들은 가장 폐쇄적인 국가의 주민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전하는 북한, 탈북자의 소식은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북한선교사에게 일어나는 사건 또한 언제든지 국가 간 민감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사역에 종사하는 현장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중국정부의 종교정책과 중국 가정교회¹

김아모스 선교사 (빌리온선교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공산당 정부에도 종교신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차원의 자유인데 다양한 금기와 제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적이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제한된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집회나 신앙의 전파나 교육 등은 제한되고 있다.

2018년 2월 1일에 시행되기 시작한 신종교사무조례는 이것을 더 분명히 하는 조례이다. 두 가지 보호, 두 가지 명시, 두 가지 규범화라는 여섯 가지의 특징²을 갖는다. 이와 같은 신종교사무조례 시행 하에서 중국교회 특별히 중국의 가정교회는 어

떤 상황이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 글을 통하여 신종교사무조례 하에서의 중국 가정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선교 정책을 세우는 일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Q1 2018년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종교사무조례’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나 목양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어떤 형태의 압력이나, 지시(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는 등)가 있었는지요?

A1 압박은 실로 매우 큼니다. 많은 불편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목회 현장과 특별히 부흥회나 집회 등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한계를 느끼게 하죠.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출국금지 하고, 물론 이것은 개별적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즉, 저와 같은 단체의 주요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일 수 있

습니다. 외국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신학교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헌금함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사항을 확실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2 공산당 정부가 교회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요? 이를테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정부로부터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요?

A2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정부에 등록하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시를 따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은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신종교사무조례를 학습하고, 교회의 벽에 종교사무조례를 벽에 붙이고, 국기를 벽에 걸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24자³를 예배당 안에 붙이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Q2-1 그 지시를 받고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A2-1 우리는 교회 안에는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로 복도로 붙여 놓았습니다. 정부는 예배당 안에 붙이는 걸 요구했지만 말입니다.

Q3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 까요? 문화대혁명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강력한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社会主义核心价值观)은 ‘부강(富強), 민주(民主), 문명(文明), 화해(和解)’는 국가 수준의 목표이고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愛國), 경업(敬業), 성신(誠信), 우선(友善)’으로 2012년 중국 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공식적 가치관이다.

특별히 2004년⁴ 이후 14년간 이런 심각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시행되는 신종교사무조례가 왜 이렇게 긴장되고 강력하게 시행하게 되었나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목적이 무엇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3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통제할 리 범위를 넓히고 관리 강도를 심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정권을 집중적으로 장악하려는 한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중국 내 각 사회단체들도 중앙으로부터 더 강력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장(한국의 동장이나 이장)들까지도 지시를 받아 정기적으로 마을에서 국기 승기에 식을 치루고, 핵심 가치관을 붙이게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작은 마을까지 장악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중국 교회가 부흥하기 전, 주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Q4 목사님, 그러면 현 상황을 정부가 완전히 교회를 주관하려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일까요?

4 중국은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제 88조에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2년 ‘제 19호 문건’을 공포하면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구체화 하였고, 1994년 국무원령 제 144조, 145조를 통해 종교정책이 법적인 형태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국무원령 ‘제 426호 문건’인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한 바 있다. 김종구, “신종교사무조례”, 「위드차이나」 2018년 봄호(Vol. 8), 62.

1 이 글은 필자가 신종교사무조례의 강력한 시행 이후 중국교회(가정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2018년 4월, **성** 단체(한국의 교단)의 선교협력원에서 두 명의 책임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교회의 목회자이며, 이 단체의 책임자이며, 선교 담당부장이기도 하다.

2 강경구 외 4인 공저,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서울: 신아사, 2018), 39-43. 두 가지 보호: 종교신앙의 보호와 국가사회 안전의 보호, 두 가지 명시: 종교활동 장소의 법인자격과 종교 재산권의 명시, 종교계 상업화 경향 억제 명시, 두 가지 규범: 종교계 재무관리의 규범화,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의 규범화가 있다.



〈교회 안에 걸린 오성홍기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상화. 중국 당국은 교회 안에 오성홍기 게양도 의무화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상화 게시도 요구받고 있다. (사진=중국을 주께로)〉

A4 현 상황을 제 3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중국 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과 연결이 되어 세계 선교의 비전도 갖고, -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여러 교회들과 단체들이 세계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탄이 이런 선교 부흥을 못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한 자가 정부를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정권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상황이 주는 이런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Q5 그렇다면, 중국 교회 인도자로서 정부의 이러한 박해 행위에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A5 정부의 이러한 박해 행위를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런 핍박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도 한 과정이고 일시적인

고, 결국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전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리 좋지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 또한 과정일 것이다.

Q6 목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태도는 낙천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교회와 교회 인도자들은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제일 큰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A6 제일 큰 고통은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엄청난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Q7 목사님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건강한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있지만, 믿음이 비교적으로 약한 일반 교우들에게는 큰 충격이 있겠지요?

A7 일반 교우의 경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어떤 이들이 모임에 참석하는 걸 두려워하여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은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볼 경우 교우의 90%는 잘 이겨 내고 있습니다. 성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10퍼센트 정도는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된 걸까요? 정부가 어찌하여 이토록 교회를 핍박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흔들림이 없다고 봅니다.

Q8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 정부로부터 이런 강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가끔 교회가 폐쇄당하기도 하고, 또 예배 모임을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혹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A8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정부에게 편지를 쓰고 정부와 대화를 합니다. 연합하여 서명운동을 하고, 정부와 대화하고 또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소그룹을 짜서 모임을 가집니다. 지금의 상황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상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으려 하면 닫고 소그룹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좀 용기가 있는 단체는 연합해서 서명운동하고 정부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중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용감하게 핍박에 대항하여 나서는데 방법은 주로 연합해서 서명하고 항의하고⁵,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

⁵ 2018년 7월, 중국 북경도시 가정교회 19명의 지도자들은 ‘북경가정교회연합성명(北京家庭教会联合声明)’을 발표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문 작성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중국 가정교회는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북경, 상해, 사천, 광둥, 하남 등 지역의 가정교회가 여러 형태의 압력을 받게 되었고, 집회 장소도 아무 이유 없이 간섭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 또한 크게 상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 가정교회의 역사와 현황을 존중하며, 가정교회의 종교업무와 방법과 규율을 존중하며, 신앙을 가진 공민의 기본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를 요청한다.” 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구, “중국가정교회 대정부 선언문 고찰”, 「위드차이나」 (2018년 여름호) 참고)

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교회 문을 닫아 버리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들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자교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현재의 대화는 정부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지 말라는 조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Q9 예를 들어, 등록의 의미는 삼자교회에 소속한다는 뜻인가요?

A9 아니요. 등록하라는 최종적인 목적은 당연히 교회의 주권을 공산당 정부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을 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우린 분명하게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Q10 관리 받는 것과 삼자교회에 가입된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A10 당연히 다르죠. 삼자교회는 이미 주권을 정부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그들은 현재 전기세, 수도요금, 안전과 같은 표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것까지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태도는 관리해도 좋지만,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지 말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 정부의 관리에 순종할 것이지만, 셋째로 정부는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들을 말하

고 관리를 받는 입장입니다.

Q11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종교사무조례는 가정교회가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A11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종교사무조례로 기독교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행동을 취한 결과로 가정교회가 빛을 보고 합법화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원래 가정교회는 숨어서 활동했는데 현재 신종교조례가 시행 된 이후 가정교회로 하여금 역사의 무대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억할 것은 정부의 생각은 딱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정교회의 주권을 정부로 하거나, 삼자교회로 병합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삼자교회는 그들에게 주권을 넘겼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교회가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을 절대 용



〈중국의 종교 탄압은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독교박해감시기구인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종교의 중국화’ 조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예배 스트리밍이나 설교, 출판 등 인터넷 활동을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어떤 단체나 개인도 ‘종교의 이름으로’ 온라인 헌금(또는 기부)을 할 수 없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각종 성경 공부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당 정부가 요구하는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면 관계상 전체 내용을 쓸 수 없어 아쉽지만, 인터뷰 전 과정을 보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외에는 어떤 것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시련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요 분부인 복음전파와 세계선교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이 가장 두렵다는 고백을 들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래 전에 만났던 중국 가정교회의 성도가 생각이 났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혹독한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홍위병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였고, 그 일로 인해 99%의 시력을 잃은 할아버지 성도였다. 중국 교회는 환란과 핍박을 경험한 교회다. 중국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의 성령께서 중국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중국교회가 일어나 열방으로, 저 북한으로 복음행진을 계속하기를 축복한다. ☁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 1:12-14)

칼럼 3

러시아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한국 교회

박 형 서 목사 (한민족고구마나눔운동본부 대표)

아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로 부르신 하나님

저는 “우리 한민족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5천여 세월을 보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한민족인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희가 섬겼던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지역은 ‘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라는 뜻도 있고, ‘한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 ‘맨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고요, 우리나라 이름이 한국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열방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민족이다, 한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로 퍼뜨리시고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동안 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대에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사변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을 우리도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 시켜주시는 이유는 세계 선교라고 믿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73년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나 74년 엑스포로 74, 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세계로 넓혀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많은 청년들이 헌신했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나 지금 선교현장에 나가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때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당시는 우리가 세계선교를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많은 부족함이 보였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근의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나아가 혁혁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그로 인한 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 러시아의 지도자 레닌은 민족자결주의를 이야기하며 소련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해방을 시키고 각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은 다시 제국주의를 부활시켜서 중심의 러시아를 세워놓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와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까지 묶어 소련이라는 국가 체도를 만들었습니다. 소련은 각 민족에 온 세계를 공산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민의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잘해서 만약에 땅을 주겠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서유럽에 비해 거의 100 년에 가까운 문화적인 차이, 과학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막강한 국가적인 힘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업화입니다.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금이 필

요합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존의 농업을 통한 생산물을 수탈하여 그 돈으로 기계를 사고 국가 건설을 한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이념을 따라 집단 농장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보면 푸른색이 있고 그 밑에는 노란색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아래 땅이 곡식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잘 분배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수탈해서 그 돈으로 공업화를 시키는데 사용하였고, 거기에 사회주의 집단화 정책의 악영향이 겹치면서 자그마치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아사하는 최악의 대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7-80여년이 지나 개혁개방과 소련의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립이라는 특별한 축복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푸틴이라는 사람은 전근대적인 생각,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속해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 발아래 있어야 된다.” 라며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여 그 고통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도시대 당시부터 땅 끝으로 불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말로 땅 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땅 끝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아픔을 보며 큰 슬픔을 느낍니다. 21세기가 되면 정말 세계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줄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인접한 다른 나라들도 불안해하는 것을 보며 역사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여러 전쟁을 당하고 타민족의 압박을 받으면서 오랜 역사동안 많은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던 한인 선교사님들 역시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주변국으로 피난하신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고 섬기는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를 잊지 않고 이곳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데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북한 선교의 경험

저는 1991년도에 러시아 선교사로 모스크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다양했습니다. 러시아 원주민, 중앙아시아인, 고려인, 그리고 북한 대사관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성무역사람들과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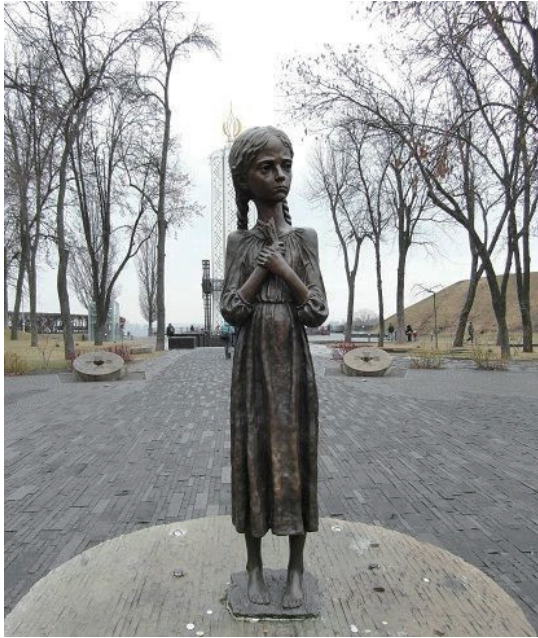
제가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스크바에는 북한대사관 요원들,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옵니다. 저는 러시아 최초 개신교 병원에서 10년 동안 원목을 했습니다. 김

일성종합대학 의과대학 교수들도 러시아의 의술을 배우려고 왔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알코올이나 마취제도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에 북한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오면 선물을 드리거나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적이 소문이 나면서 북한 관계자들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북녘 백성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어느 날 평양 김일성대 의과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와 오랜 대화를 나누던 중 “조국을 방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알고 보니 북한을 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아... 내 조국은 대한민국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잃어버린 땅인 북녘을 바라보며 내 조국이란 말에 갈등과 번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그 교수의 말이 마치 바울에게 들렸던 ‘마케도니아를 도우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번민 끝에 비자를 받아 북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북녘 비자를 받았냐고 의아해 하실 듯 싶은데 러시아 영주권과 캐나다 시민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기존 사역을 원주민들과 저의 배우자에게 다 맡기고 러시아 원주민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캐나다 시민권도 주시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미리 경험케 하시고, 러시아 영주권도 주셨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방북을 하면서 처참한 북녘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우크라이나 대기근(1932-33)으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비와 추모비 지하의 기념관이 있다. 사진은 추모비 앞에 위치한 이삭을 소중히 잡고 있는 맨발의 양상한 소녀의 동상〉

체 백성의 1/3이 영양실조와 결핵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성장 발육된 어린이, 학생, 군인,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정답을 찾을 수 없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의 기아와 굶주림의 문제는 북녘도, 남녘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유엔도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체 북녘 백성이 무슨 죄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북녘땅 흙을 퍼와 남으로 가지고 와 농촌진흥청 관계자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 했습니다. 다행히도 흙의 성분은 남녘 토양과 같은 황토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산

성화된 썩은 흙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흑여나 방법이 있을 까하여 대안을 요구하니 땅의 토질과 상관없이 잘 자라는 고구마를 심는 것은 어떻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북녘 땅에는 오랜 흉년으로 인해 옥수수과 감자도 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남녘땅에서 실질적으로 농학 박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좋은 개발된 신품종 고구마를 인천공항에서 심양으로, 그리고 북한 고려 항공을 통해 북으로 대량 운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해북도, 평안남도에 농장을 만들어 파종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그 해 가을에 대풍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품종 고구마를 북녘땅 전체에 전파하고자 자강도부터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북도, 평안남북도, 서해남북도 등에도 농장을 만들어 품종을 정착시키기 위한 농사를 짓고 두만강과 압록강 위에서 아래 북녘땅으로 고구마 보내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북녘의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농법과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하면서 점차 지경을 넓혀서 보육원, 장애자연맹, 인민학교 등 가능한 모든 개인 땅에서 농사지어 백성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 고구마는 그 해 거두어들이 옥수수의 30배 아니 10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적이 생긴 것처럼 봄 파종시 유독 고구마 밭에만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북녘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목사 선생님이 오시니 하늘이 돕는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은 요셉이 7년 풍년에 창고를 지어 보관해서 기근으로부터 당시의 인류를 살린 것처럼,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당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며 "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처럼 작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북쪽에 사는 동족을 굶주림에서 살리고 죽음에서 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한민족 고구마나눔운동본부를 만들어 그들을 지금까지 지원하게 되었고 또한 기술과 농업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땅 끝 선교사님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 먹일 수 있도록 40여 개국에 고구마를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때와 우리의 순종

처음 러시아로 나아갈 당시 저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인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안에서 본 러시아는 망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러시아는 개혁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도저히 이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제국이 공산주의 혁명을 경험하고, 다시 공산주의가 멸망한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큰 제국을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제국이 허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온몸이 구멍이 나 있는 공룡의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까지 모든 국가의 역량을 모아서 백성들을 속이고 국가를 잘 경영하는 척 하면서 그루지야를 공격하고, 체첸을 공격하고, 시리아에 가서 공격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강패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 중에 지하교회 성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약 사천 여개의 교회가 창립되었음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 시간이라는 것은 하프타임, 즉 잠깐 쉬는 것입니다.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을 진행하고 하프타임, 즉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뒤 후반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열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잠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깐의 평안 이후 무서운 일곱번째 봉인을 때면서 인류의 멸망과 함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나라에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아직은 선교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욱 위험하고 어려운 점들도 많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선교의 문이 점차 닫혀질



〈강원도 원산 고구마 농장을 방문한 필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비밀리에 한인 선교사님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체류하는 선교사님들은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고, 카톡 메시지 등도 검열이 되기 때문에 오가는 메시지나 문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러시아의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점차 드러나는 사역보다는 은밀하게, 예전 공산 치하에서의 비밀 교회 지하교회와 같은 시스템 구축하며 선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이 언제고 공산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심각한 박해가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지하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를 계속 바라보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첫째는 앞서 언급한 정보기관이고, 둘째는 공산 치하에서 70여 년 동안 고난 받았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공산세계가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신앙을 드러내지 않

는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박해시대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수년간 저희를 관찰하시다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이 된 후 저희와 연결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교단 및 종파 배경에 따라 각각의 러시아인 지하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 북한이 소련을 본 딴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북한 땅은 소련의 모든 것을 카피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오후감독제를 세워서 백성들의 머릿속에다가 허상을 심어놓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제가 방문했던 북한은 소련이 했던 것들, 또 중국이 했던 것들을 카피한 듯 보였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 백성이고 동족인데 굶주리고 있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을 자유도, 이동

할 수 있는 자유도,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주시면 그때 열심히 가서 일해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돕고 선교해야 합니다. 근래 중국이 다수의 한인 선교사들을 추방하면서 철저히 위장하며 자신을 감추신 몇몇 분들 외에는 비자발적으로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러시아를 통한 북한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헌신과 결단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통해 북한을 향한 복음 선교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러시아, 북한, 중국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북한 관련 사역 하지 말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을 찾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도 머지않아 선교사 추방 등 중국에서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소명을 가지고 러시아로의 파송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루속히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생각의 한계를 넓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인들은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갈 수 있는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할 수는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길러낸 제자들을 현지의 사역자들도 세우지만 또 한 사명 있는 이들은 북한 선교사로 세우는 것입

니다.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외의 국가에서 신분을 얻을 수 있다면 직접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얻어놓으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역을 이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강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체류하더라도 외국인 신분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기 매우 어렵지만 러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시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 선교에 나서시길 권해드립니다. 북한 땅이 활짝 열리기 전이라도 들어가서 통일 전에 북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따라 북한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남북의 복음 통일을 이



〈황해북도 사리원 애육원(북한의 고아원, 주로 5-6세 아이들이 생활한다) 원생들이 마른 빵을 먹고 있다.〉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3)

-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

꿈을 꾸는 자매



〈평안남도 은산군 한민족고구마나눔운동본부 고구마 농장에서 북녘형제들과 손잡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필자〉

루는 것이 선교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선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든 어느 섬나라이든 그 땅 끝에서 사랑으로 섬긴 귀한 경험을 가진 훈련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꼭 북한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한되겠지만 여러 땅 끝에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북한 사람들을 섬길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먹는 문제와 생존의 필요를 채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셔서 제가 북한에서 활동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북에서 저는 제 신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목사이 러시아 선교사인데도 나를 필요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족이 굶주리

지 않고 살려내야 한다는 뜻에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구마를 매개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순수하게 필요를 채우고 돕고자 한다면 분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분명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한국 교회가 북한선교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 북한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엘리아가 로뎀나무 밑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칠천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신 칠천과도 같은, 기드온의 삼백 용사와 같은 선교사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큰 전환점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의 경우 주님의 강권적인 자비하심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어 내가 그분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탈북 직후 이모 댁에 머물면서 마음 고생을 할 때 주님은 초신자였던 나에게 그분의 위로와 감사를 부어주셨으며, 결핵과 간염에 시달려 영적, 육체적 싸움을 싸울 때에도 그분은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이곳 영사관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참된 그분의 경륜을 밝히 보이셨다. 단순히 내 몸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실 주님의 원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나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릴 줄 알았다. 그러나 일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영사관에서 머무는 기간

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주님께 대한 감사와 환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다. 얼마나 그 기간이 답답했는지 함께 머무는 사람들과 결의를 하여 빨리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겉으로는 단식을 하는 척을 하면서 뒤로는 숨어서 밥을 먹은 적도 있었고, 연기를 잘하는 애 엄마와 함께 아파 기절하는 척을 하며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다. 그렇게 갖은 방법으로 한국에 빨리 보내달라며 아우성을 치다가도 정해진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서 홀로 기도할 때면 그런 철없던 마음이 회개로 바뀌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이 정돈되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 영사관에서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좋은 시설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금과 같이 귀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한국에 갈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영사관 건물이 텅텅 비어있고 열려 있는 창문에 커튼과 종이 조각들이 휘날리는 꿈이었다. 꿈이 너무 생생했지만 나



〈베이징 소재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는 ‘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꿈을 꾸었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영사관에 있던 모든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보내졌고, 곧이어 영사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 현 영사관 건물이 리모델링을 위해 비워지고 우리가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신비하기 그지없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한숨을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오면 무척이나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하니 수많은 감정이 북받쳐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내 고향을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떠올리면 애석하고 슬프면서도 동시에 수년 간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

로 소망했던 이 땅을 드디어 두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주셨던 또 한가지 선물은 몸의 회복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나는 2주 간의 조사를 받았다. 내 병력은 중국에서부터 익히 확인된 사실이었기에, 나는 조사를 마치고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핵과 간염이 모두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영사관에 있었을 때 한국 의료팀을 통해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은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모양이었다. 그동안의 투병으로 인해 시력은 많이 나빠졌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기도 잘 걸리지 않을 만큼 몸이 튼튼해졌다. 새로운 보금자리와 함께 새로운 몸의 건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마음에 참으로 감사했다.

예전에는 종종 중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지 않고 곧바로 한국에 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그렇듯 중국에서의 생활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육체적으로도 고생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아해보면 중국에서의 10년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의 훈련을 받았던 것과 같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마음이 든다. 모세는 바로의 양아들로서 각종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 왕성한 혈기로 동족을 구한답시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가 피신했던 전적이 있다. 그가 광야에서 이드로 집에서 머물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바로 그의 교만함이 다루어지고 자아가 내려놓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나는 입이 둔해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다.

모세가 세월을 거쳐 이렇게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는 이 구절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일종의 공감을 느낀다. 살 길을 찾기 위해, 생존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넘어갔던 중국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높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배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교양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자만심, 그리고 한때 부유하게 살았던 이모 댁에 얹혀 살면서 인신매매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다른 북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그들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무시하기

도 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밀어넣으셨다. 갑작스럽게 공안에 쫓겨 연고 없는 곳으로 피신하면서 나는 살기 위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매사에 언어를 할 줄 몰라 무시당했고, 가진 것도 없었으며,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이 전에는 상대적으로 실감하지 못했던 신변의 불안을 체감하며 매사에 긴장해야 했다. 그렇게 10여년 동안 중국이라는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 내 마음은 자연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고집이 아닌 회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높고 거친 마음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만드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

겸손의 훈련은 한국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처음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 분명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웃을 때 나 홀로 웃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릴 때 영문을 몰라 눈만 껌벅거렸다. 그렇게 나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그토록 무시했던 북한 동포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중국에서 품었던 민족을 향한 비전에 대해, 나를 이곳 한국으로 미리 부르신 주님의 그 계획에 대해 점점 더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하나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나와



자유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는 감사하게도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중국에서부터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 앞에 품었던 소망을 따라 어떤 대학을 갈지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했다. 중국에 머물며 한국 가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보이셨다. 즉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대학교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명해 주셨다. 중국에서 한인교회에 다닐 적에 한국에서 강사로 오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며 그 분이 재직 중인 대학교 이름을 처음 듣게 되

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설교집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 목사님의 약력에도 같은 대학교의 이름이 보였다. 그 후 한국에 들어와 하나원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을 할 때 처음으로 기독교 서적을 골라 읽었는데 우연히도 같은 목사님의 책을 고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분이 나오신 대학교 이름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앞두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과거 중국의 영사관에서 ‘평양 대부흥’이 적힌 성경책을 주셨던 집사님께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는데, 그 분이 추천하신 대학교 또한 같은 학교였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경험들이 퍼즐처럼 맞춰졌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게 되었다.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English의 E자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나에게 영어는 큰 장벽이었다. 중국에서는 생존을 위한 일을 주로 하다 보니 공부 머리를 쓸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부를 하려니 마치 녹슬었던 기계를 다시 돌리는 것 마냥 쉽지 않았다. 옛 어린 시절 체조만 하다가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결국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달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재정적 필요도 큰 부담이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당장 원서 접수 비용도 크게 느껴졌다. 고민 끝에 용감하면 무식하다는 말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그 대학교 한 곳에만 원서를 접수하였다. 그렇지만 막상 시험 보는 당일이 되자 긴장도 많이 되고 실수도 많이 하였다. ‘이번에는 글렀구나’는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입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합격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기도 가운데 주거 문제도 잘 해결되었다. 모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생을 위한 주택에 응모했는데 마지막까지 내 이름이 불리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넓고 좋은 집으로 당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나는 주님의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나 혼자 이러한 복을 누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와 정기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재정을 떼어남을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하신 주님의 큰 경륜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된다. 이후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도 진학하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평신도의 신분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며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중국에서 성경을 필사하며 경험했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때 받은 사명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용기를 내어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을 결정했다. 이렇다 할 경제적인 발판은 전혀 없었으나 주님이 나의 발판이 되어 주셨다.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며 필요한 등록금을 고민하고 있을 그 때에 우연한 계기로 나라에서 주최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꾸준히 했던 자원봉사와 정기 후원을 통해 오히려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나를 비롯한 탈북민 신학생을 돕기 위한 새로운 장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주님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신비하고도 신실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한번 경험하였다. 중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의 광야’로 걷게 하셨다면 한국에 와서는 ‘준비의 광야’를 걷게 하셨다. 한국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각종 교회 사역과 함께 탈북민 관련 모임 및 연합체의 회원과 회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셨다.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라는 새로운 직분만큼이나 새로운 관계와 신앙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

북, 4년 4개월만에 ICBM 동해상으로 발사…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며 끝내 한미가 임계점으로 규정해온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 합참은 3월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는 약 1천80km, 고도는 약 6천200km 이상으로 고각 발사한 것으로 탐지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ICBM을 신형 '화성-17형'으로 보도했다.

고각 발사이긴 하나, 북한이 이날처럼 ICBM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2018년 4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도 4년 만에 깨졌다.

북한은 앞서 2월 27일과 3월 5일, 16일 등 총 세 차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앞선 두 차례는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궤적을 속여 발사했다. 세 번째 미사일은 상승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해 대내외에 망신을 당했다. 발사에 실패한 지 불과 8일 만에 ICBM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했다는 점에서 기존 ICBM을 사실상 '만화용'으로 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가 앞선 두 차례 ICBM 성능시험 발사 당시 분석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ICBM 도발을 재개하면서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했다. 합참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약 1시간 50분 만인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강릉 등 일대에서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미 간에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15일 필리핀해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F-35C 스텔스기가 출격해 서해까지 장거리 시위 비행을 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북한이 남측이 정권교체기로 어수선한 틈을 타 대비태세를 시험하고자 도발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인수위가 북한의 이날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은 그간 도발 규정을 주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기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연합뉴스, 3월 24일)

었다. 스스로의 신앙을 돌보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고,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상처도 받으면서 주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서 점점 준비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북한 사람으로서 이곳 한국에 있는 동향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거리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중국에서 공안에 쫓길 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요셉과 같이 미리 부른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만나는 탈북민들이 나를 비단 '사역자'로 대하기보다는 같은 곳에서 태어나 같은 것을 느끼고 경험한 '언니'이자 '이모'로서 받아들여주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알고 경험한 자로서 다른 북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주님, 지금은 이렇게 주님의 강권적인 자비하심으로 나와 같이 북한 출신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주님이 이 땅과 북한 땅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찬란했지만 가난했던 내 고향, 북한 땅을 뒤로 하고 중국에 왔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아직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던 그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회복과 선포의 노래를 주셨는데, 후에 성경을 찾아보니 이사야서 52장 말씀이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철없고 배고픈 대학생들 중국 땅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 아래 먹이시고 입히시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조금씩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 중국에서의 10년과 한국에서의 10년을 지나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

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북한 땅에 주님의 회복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꿈을 꾸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 (끝)



〈1910년도에 촬영된 평양의 한 교회의 모습 (The Korea Times)〉

북, 풍계리 복구 및 영변 핵시설 가동 조짐 관측



〈지난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강도와 부속 건물 폭파 모습〉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 건물이 건축되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3월 7일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에서 새 건물 건축과 기존 건물의 수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맥사테크놀로지’가 2월 18일과 3월 4일 촬영한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이 일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2월 18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빈 공간이었던 공간에 건축용 목재와 톱밥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3월 4일 선명하게 포착됐다. 또 핵시설 내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고, 건물 보수를 위해 새롭게 벌목한 목재를 쌓아 두고 수리가 진행 중인 모습도 확인됐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같은 변화가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건축과 강도 지주 공사에 상당한 양의 목재를 사용해왔던 만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초기 징후가 포착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 조치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목격된 활동이다.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정황도 또다시 포착되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월 3일(현지시간) 상업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영변 핵시설의 5MW급 원자로 건물과 인근의 터빈 등 여러 지원 건물 지붕의 눈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녹아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다른 건물들의 지붕에는 흰 눈이 뒤덮여 있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 발생한 열 증기로 해당 시설만 눈이 녹았다는 분석이다. 즉 우라늄과 플루토늄 모두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변 핵시설은 IAEA가 21년 8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재가동 정황을 공식 보고한 이후 약 7개월째 계속해서 가동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38노스는 이번 위성사진에는 영변 핵시설 일부 지역에선 도로의 눈이 제설된 흔적도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영변에서 관측된 활동은 핵분열 물질 생산 및 추가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는 것이라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VOA “북한 외화벌이도 루블화 급락·금융제재로 타격”



〈2월 28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환전소(사진=VOA)〉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루블화 가치 급락과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월 1일 보도했다.

통상 러시아 현지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은 노동에 대한 임금을 루블화로 받은 뒤 이를 달러로 바꿔 북한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루블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북한 당국에 보내야 하는 상납금 기준에 한참 못 미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국제사회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전날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하루 만에 30%나 급락하며 장중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현지 북한 외화벌이 관계자들은 기존보다 루블화 가치 하락 폭인 30~40%만큼 더 많이 벌어야 상납금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

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환전 시기를 놓고도 고심이 깊다고 VOA는 현지 상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러 금융제재로 북한에 돈을 보낼 길이 막혔다는 점도 문제다. 상당수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은 최근 페이팔(Paypal) 같은 국제 온라인 지불 시스템의 가명 계좌를 통해 러시아에서 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후 다시 북한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이번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달러가 묶이고 송금수단도 중단되어 북한 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이들 업체가 그동안 부족한 상납금을 충당하거나 북한 내부 특별행사 때 돈을 보내기 위해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린 경우도 많아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VOA는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하는 대북 제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교육 등 다양한 위장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외화벌이를 해왔고, 북한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남아있는 대규모 노동자들도 여전히 외화벌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VOA, 3월 1일) ☹️

북중 화물열차 재개로 올해 1~2월 교역액 작년 동기대비 40배 증가



화물열차 운행 재개에 따라 올해 들어 2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8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홈페이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2월 북중 교역액은 1억 3,626만 달러(약 1,653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 327만 달러(약 40억 원)보다 40.7배 증가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억 1,630만 달러(약 1,411억 원)를 기록했고, 수출액은 1,996만 달러(약 242억 원)였다. 전년 같은 기간 수입액(3만3천 달러), 수출액(328만 달러)과 비교하면 수입액은 3천523 배, 수출액은 5.1 배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1~2월 교역액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같은 기간 북중 교역액(2억787만 달

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강, 수산물 등의 수출 길이 막힌 북한이 화물열차로 생필품 수입에 치중하면서 대중 수입액은 급증한 반면 수출액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내이름은 김다혜
저자: 김다혜
출판사: 좋은 땅
발행일: 21년 10월 10일
가격: 18,000원

《내이름은 김다혜》는 1980년대 초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여성의 삶을 담은 실화소설이다. 출판사는 이 책을 북한판 《82년생 김지영》으로 소개한다. 겉으로 보기에 두 책은 비슷한 점이 꽤 있어 보이긴 한다. 그렇지만 몇 년 전 한국에서 큰 유행을 끈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작가가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소설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김지영이라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이시대 여성들에게 충분히 있을법한 일들 중 자극적인 사건들을 신랄하게 묘사하였다면, “김다혜”는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김다혜라는 관찰자의 시각을 통해 시종 담담하게 묘사한다. 관찰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주인공의 삶에 이렇

1989년 임수경 방북사건 때 한동안 온 동네가 임수경의 이야기로 가득 찼던일,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느꼈던 절망감과 한 달 넘게 이어진 추모동원으로 인한 고통, 1998년 정주영 소 때 방북시 북한의 보도와 인민들의 반응,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을 방문한 남한의 대통령을 보며 북한 주민들이 느낀 감격과 통일의 기대감, 2002년 7. 1 경제개혁 조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의 일련의 사건들과 당시의 마음을 묘사한다. 물론 극심한 식량난과 공포통치의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의 특징은 수많은 파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시종일관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그 사건으로 있었던 평범한 북한 여성의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자세히 설


게 저렇게 나비효과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김다혜”는 “82년생 김지영”보다는 오히려 생애사를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는 작품들, 가령 “포레스트검프”나 “국제시장” 같은 영화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두 영화가 각각 미국과 남한의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평범하거나 약간 부족한 주인공의 시각에서 통사적으로 서술 했듯이, 이 책은 북한의 현대사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평범한 북한소녀-북한아가씨의 시각을 제공한다.

명하는 것에 있다. 이는 탈북민 수기 중 가능하면 파격적인 사건들을 최대한 부각하고 강조하는 부류의 책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이 책은 이어서 저자의 탈북과 중국생활, 남한입국과 정착 그리고 주재원으로 일본에 파견된 남편과 함께한 일본에서의 생활을 묘사한다.

저자는 북한에서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탈북-정착-해외체류 간에 있었던 일들의 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탈북 이후의 삶은 북한에 남은 쌍둥이 언니 김다은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이는 가족을 넘어 같은 성별, 같은 나이, 같은 외모의, 또 다른 나였을 북한여성에게 전하는 고백이자 북한과 남한 모두의 속살을 경험한 평범하지 않은 여성의 시각으로 서 남한사회를 보며 느끼는 모순에 대한 고발이다.

이 책에서 인상깊은 부분 중 하나는 주인공이 이화여대 재학 중 들었던 여성학 강의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그녀는 수업을 통해 접한 여성학의 다양한 담론을 통해 머리가 깨이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멸, 가부장제에 대한 신봉 등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관념에 균열이 생기고, 수업시간마다 그동안 무지했음에 부끄러워하며 (본인의 말에 의하면) 여성학 신도가 되어갔다. 인권 중시 사상과 페미니즘이야말로 북한 정권을 단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신념을 갖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열정은 해당 수업이 북한여성을 다루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여성학 강사는 유독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령 칠흑같이 어두운 북한의 위성사진을 보며 북한의 환경보호를 예찬하거나 김일성 대학교 여교

수의 논문을 통해 북한정권의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게 평가하는 강의를 한다. 이 시점(時點)에서 김다혜의 시점(視點)은 북한이 아닌 남한사회의 모습으로 옮겨간다. 그녀의 비판은 선택적 페미니즘과 선택적 인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실망으로 시작하여 북한에서 뻗속까지 좌파였던 자신이 보기에 좌파답지 못한 좌파의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급격한 희망으로 시작하여 급격한 실망으로 이어진 저자가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가 찾은 이 땅의 새 희망은 대한민국의 청년세대이다. 현실에 분노하며 합리성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세대들로부터 김다혜는 소망을 보려고 노력한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 중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과거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탈북 여성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전하여졌다면 최근에는 더욱 많은 유튜브 인터뷰 채널과 탈북 여성 유튜버들에 의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책의 장점은 어떠한 사실을 정리, 정제된 언어로 전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출판된 책을 선호하며 영상자료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정리되고 검증된 내용을 얻기 위해 굳이 책과 논문을 찾게 된다. 이것이 영상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 책이 갖는 의미이다. 《내이름은 김다혜》는 북한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북한내부의 평범한 여성의 시각으로 묘사하였다. 북한, 중국, 한국, 일본 사회를 두루 경험해 본 여성의 시점에서 지적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우리도 한번쯤 생각해볼 이슈라고 생각된다.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신형 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이 4년 만에 깨진 것입니다. 미중갈등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세를 틈타 이루어진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동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북한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 지역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코로나 방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종교의 사회주의화 추구하고 기독교 활동 통제에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사회 불안으로 선교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 때 가장 큰 선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북한 선교의 새로운 때를 준비하며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국에 선교를 위한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제 3국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혼란한 국제정세와 각 국의 반선교적 정책으로 인해 선교사역은 위축되었고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의 활동도 장기간 제한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끝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이 인내하며 준비하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의 문을 곧 열어주시리라 믿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용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그렇지만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간 현장을 지킨 일꾼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오픈도어선교회는 계속해서 현장의 일꾼을 세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선교 현장에 준비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요.

4 북한 성도들의 인권과 지하교인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법 등에 따른 강력한 사회 통제와 감시 속에 발각되어 형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북한 당국의 강화된 통제와 박해 정책 속에서 지하교회가 발각되어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신 안타까운 사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 지하교회 성도들 외에도 김정욱

(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씨를 비롯한 탈북자 출신 한국인, 그리고 조선족 출신 선교 사역자들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신앙을 이유로 갇힌 이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감옥에 갇힌 북한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송금이 제한되면서 러시아에 남아있던 북한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으나 여전히 수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유학 및 관광비자 등 편법을 동원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로 북한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로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북한이지만 국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비교적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예비된 영혼들입니다. 제 3국에 있는 북한주민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현장으로부터 라디오 선교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격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종이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라디오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봉사자들과 스태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일 북녘의 성도들과 주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사역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3월 31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사역 조건

선정된 선교사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파송선교사에게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